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복음을 대하자면 주님 품으로 가신 박석희 이나시오 주교님이 생각납니다.

오늘 복음 중에 12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한때 교구청에서 청소년 담당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교구청에서는 매일 새벽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교님을 위시하여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가끔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지요. 새벽미사 주례는 교구청 신부님들 각자가 정해진 날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주례를 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당번이어서 주례를 했는데, 그날 복음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미사의 강론을 준비하는데 뜬금없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즉필사 사즉필생(生即必死 死即必生)’ 즉,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이순신 장군이란 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국가에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했던지라 자연스럽게 그분의 어록이 제 머리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강론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오늘 복음말씀을 들으면 왜 이순신 장군이 떠올라요...” 하고 강론을

시작했었죠. 미사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는데 박주교님께서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하시며 막 웃으셨습니다. 그날 아침식사 식탁의 이야기 거리는 단연 ‘예수님과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25절)라는 말씀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24절)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주님의 역설적인 이 말씀을 듣자면 정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분들과 함께 자리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신앙생활이랍시고 할 때는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름대로 성경공부도 하고, 신앙강의도 듣고, 피정도 하며 여러 단체 활동을 통해 봉사를 하다 보니 신앙인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부족한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해보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은 오히려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들어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머리나 입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실제 행동은 없고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머리로서는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는 깊이 새기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몸으로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로만 하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며 인간적 갈등을 갖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은 신앙인이면 거쳐가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밀알이 썩어 싹을 틔우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썩어지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싹은 죽고 썩은 것을 거름삼아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이것은 진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지금 그대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래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근원은 주님이시며, 삶의 모습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에 입각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기에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왕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했으니 철저히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함창 본당 신기룡 안드레아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전례 중에 마음모아 기도합시다

입당성가 : 419번 '밀알 하나가'

본기도

†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예레미야서 31장 31절-34절

안 내 : 예레미아 예언자는 새 계약을 전해주며, 마음에 새겨질 아름답고 위대한 계약을 약속 해줍니다.

묵 상 : 우리 마음 안에 당신 성령의 불길로 사랑의 법을 새겨주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자녀답게 양심의 법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화 답 송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제2독서 : 히브리서 5장 7절-9절

안 내 :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묵 상 :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의 이기심보다는 하느님과 이웃을 섬김으로써 희생의 씨앗을 주님의 포도밭에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요한 12장 20절-33절

강 론 :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영성체 후 묵상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끊고, 모든 것을 떠나고,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때
얻어지는 구원과 사랑의 신비입니다.

<침묵>

속을 찌으면서도 사랑한 것, 자존심이 상했으면서도 용서 한 것
무시를 당하면서도 순명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써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써 싹이 트는 밀알,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성장하는 밀알처럼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의 밭에 묻힐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 공소사목 성금

상주가르멜수녀원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80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지구 구역·반장연수

- 동해지구 : 3월 18일(주일) 영해 성당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마티아 어린이집 축복식

- 일시 : 3월 27일(화) 15:00
- 장소 : 갈전 성당
- 주제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3월 19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3월 26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정하영 모니카(원주교구)

■ 제4회 한국청년대회 참가자 모집

- 주제 :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 일시 : 8월 11일(토) - 15일(수) 4박 5일
- 장소 : 서울대교구
- 대상 : 만 16세(고1) ~ 만 39세
- 참가비 : 20만원
(참가비 15만원+교구회비 5만원)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교구 홈페이지(<http://www.acatholic.or.kr>)에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교구 ‘성모의 밤’에 봉헌할 기도 참여하기

- 일시 : 5월 1일(화) 19:30
- 장소 : 교구청 성모상 앞
- 주관 : 안동교구여성연합회
- 대상 : 전 신자
- 기도지향 : 교구 5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교구를 위하여
- 방법 : 미사, 묵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본당별로 성모님께 봉헌(본당 여성단체 대표 4월 30일까지 수합)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로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대상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 문의 : 김낙윤 신부 010-2730-8691
kmsvocation@daum.net

■ 2018년 교황청 꿈나무캠프

- 일시 : 8월 14일(화)-16일(목)
- 장소 :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 대상 : 초등부 3~6학년 / 선착순 300명
- 참가비 : 비회원 125,000원 / 회원 80,000원
- * 회원 가입 시 회원가 즉시 적용
- 문의 : 02)2268-7103, pmsk@pmsk.net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7장

자녀 교육의 강화

자녀의 윤리적 양성

263.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게 하지만 자녀의 도덕적 양성은 결코 다른 이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정서적 윤리적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곧,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신뢰할 만한 이들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부모는 사랑과 본보기로 자기 자녀에게 신뢰와 애정 어린 존경심을 일깨워 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비록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지 못할 경우, 또는 자기 부모가 진정으로 자신을 돌본다고 더 이상 느끼지 못할 경우에, 자녀의 성숙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깊은 상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재, 곧 이러한 정서적 유기는 자녀에게 나쁜 행동에 대한 그 어떠한 꾸짖음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264. 또한 부모는 자녀의 의지를 길러 주고 좋은 습관과 선한 것에 끌리는 마음을 함양시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배워야 할 태도와 발전시켜야 할 마음을 자녀 스스로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시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언제나 불완전한 것에서 더욱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관련됩니다.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열망 또는 규범에 따라 함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습관은, 이미 그 자체로 더 높은 가치를 향한 열린 마음가짐을 키워 주는 데에 시작이 되는 가치입니다. 도덕적 양성은 언제나 능동적인 방법과 교육적인 대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대화에는 자녀의 감수성과 자녀의 고유한 언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귀납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녀에게 절대적이고 의심 없는 진리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특정한 가치와 원칙과 규범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65.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바른 판단’ 또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흔히 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양심이 특정한 도덕적 결심을 하게 해 줄지라도, 때로는 다른 매혹적인 요소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성으로 파악된 선이 우리 내면에 깊은 정서적 성향으로, 마치 선을 향한 목마름처럼,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합니다. 선은 그 어떤 매력적인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선으로 파악한 것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에게도’ 좋다는 인식에 이르게 해 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윤리 교육에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날, 노력과 희생으로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선을 보여 주지 않으면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은 흔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66. 습관을 잘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긴 습관조차도 내면화된 중요한 가치들을 건전하고 일관된 외적 행동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교적이며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랫동안 교육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선한 기질이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도덕적 태도를 형성합니다. 어떤 좋은 행동 방식을 의식적으로 자유롭고 품위 있게 반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정한 가치에 대해서 느끼는 동기나 매력은 적절하게 촉발된 이러한 행동들 없이는 미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67. 자유는 훌륭한 것이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덕 교육은 제안, 동기, 실질적 적용, 자극, 보상, 모범, 예시, 상징, 성찰, 격려, 행동 방식의 검토, 대화를 통하여 자유를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확고한 내적 원칙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덕은 내적 원칙과 확고한 행동으로 변화된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덕행의 삶을 통하여 자유를 형성하고 강화하고 교육하면 우리가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충동적 성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 존엄은 우리 저마다가 “내적 동기와 권고에 따라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임계점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역도 선수 바셀리 알렉 서예프는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501.5 파운드를 들어 올렸다. 인간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라고 규정지은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한해만 500파운드를 들어 올린 선수가 여섯 명이나 나왔다. 이 수치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아니라 역도 선수들이 스스로 정한 불가능의 벽이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을 도전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독수리는 마흔 해가 가까워지면 부리와 발톱이 몽그러져 사냥을 할 수 없게 된다. 기रो에 선 독수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단단한 바위에 낡은 부리를 쪼아 모조리 망가뜨린다. 부리가 새로 돌아나면 자신의 발톱을 뽑고, 날카로운 새 발톱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눈을 찢러 소생시킨 후 무거운 날개와 깃털을 뽑는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거듭 태어난 독수리는 40년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호박벌은 몸집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 날기는커녕 떠 있기조차 불가능한 구조를 가졌다. 그는 다른 벌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자기도 날수 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비행연습을 한다. 1초에 200회 이상의 빠른 날개 짓으로 노력한 결과 비상근이 발달하여 나는 것이 가능 했다. 하루 200km이상 먼 거리를 날아다니며 꿀을 모은다.

자신을 들여다본다. 내 안에 뽑아 낼 것이 무수히 많지만 어떻게 뽑아 낼 것인가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 고통을 감내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독수리나 호박벌처럼 살지 못한 지난날들이 아쉽다. 모험이나 도전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편안함만 추구했다. 내가 호박벌로 태어났더라면 날 수 없었을 테고 독수리였다면 다시 태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것 같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이다. 1도만 부족해도 끓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도 1도를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수가 많다. 막바지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만 끓는 사점을 잃지 못하여 그만 두기도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간절한 청원을 담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성인이 꿈에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커다란 방의 문을 열었더니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성인이 천사에게 물으니 사람들이 기도하며 바라던 것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선물을 받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 두는 것이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도전과 극복보다 좌절이나 포기가 많았다. 몸 구석구석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배에 나잇살이 점점 불어나도 머릿속 걱정만 가득하고 작심삼일이다. 운동을 하지 않으니 자연히 근력이 약화되어 힘이 없고, 체력이 없으니 쉽게 지치고 만다. 천국의 선물 방에는 금방 싫증내고 포기하며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다닌 내 선물도 제법 쌓였으리라. 올해는 끈기 있는 신앙생활로 천국에 보관된 선물을 돌려받아야겠다.